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성령 제목 : 성령으로 믿음을 쫓으라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 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망에를 메지 말라
- 2 보라 나 비율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 3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 4 율법 안에서 의롭다 힘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 5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 6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갈5:1-6)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다. 즉 계시하신다.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시다. 숨기지 않으시고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계시의 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성령은 스스로를 각 사람에게 나타내신다.

우리는 오직 믿음만 효력이 있다.

믿음은 성령님이 먼저 주신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믿음이다. 이 믿음은 그 사람의 은사와 연결되어 나타나는데, 어떤 이에게는 하나로,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신다. (증감함)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평안을 주심으로 나타나신다.

36 ...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어다... (눅24:36)

어떤 이에게는 죄책감 때문에 크고 두렵고 떨림으로 임한다.

어떤 이에게는 불의 혀와 같이 뜨겁게 임하신다.

어떤 이에게는 비둘기와 같이 임하신다.

어떤 이에게는 강한 빛과 같이 임하신다.

어떤 이에게는 우레 소리와 번개 불 같이 임하신다.

어떤 이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신다.

어떤 이에게는 환상으로 임하신다.

어떤 이에게는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임하신다.

어떤 이에게는 진리의 영으로 임하신다.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영으로 임하신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다르나 한분 성령께서 맞춤형으로 임하신다. 동일하게 거부할 수 없는 믿음으로 임하신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을 믿고자하는 충동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이때 우리의 반응이 매우 중요한데, 이 믿음에 즉각 순종하면 복이 된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내 안에 스스로의 결단으로 아멘하며 믿음에 동의하면 잘하는 것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은 마치 성냥불과 같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불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이 불을 잘 피워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면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 주시어 이 불이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하신다.)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용감하게 거짓에 대적하면 진리로 승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된다.

대부분의 거짓은 마귀적이며, 두려움과 비아냥과 세속적 분위기를 이용한다. 세속적인 분위기를 거부하면 웬지 훌로 따돌림 당하지나 않을까 염려하게 된다.

## 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에를 매지 말라

종의 명에;마귀의 종의 명에.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까봐 겁을 먹는다.

특히 우리나라에 종의 명에가 많았다. 이 명에를 매지 않으면 저주가 될까봐, 다른 사람들이 흉볼까봐 두려워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믿지는 않으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며 따른다. 마귀의 종이기 때문이다.(온 백성이 세시풍속을 쫓느라 시간과 힘을 다 쏟았다. 숙제처럼 했고, 하지 않으면 부끄러워 했고, 하고 나서는 후련해 하였다. 우리나라 1년 동안의 세시풍속 2234개)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자유의 성령님을 보내셨다. 진리의 성령을 보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운동이 활발한 나라는 반드시 부흥이 함께 하였다. 진리를 따라서 옛 풍속을 버리고 과학에 매진하고 경제에 매진하였고 학문에 매진하였기 때문이다.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았기 때문이다. (세시풍속에 매진하지 말고, 진리 탐구에 학문연구에 매진하라!-이승만 대통령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모토가 됨. 오히려 전두환 정권 때부터 이 나라는 귀신의 영에게 휘둘리기 시작함.)

두려워 하지 말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당을 짓지 말라, 오직 주님과 연합하며,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

## 2 보라 나 비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 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한다고 속였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겁을 주었다.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겁이 나기도 했으며, 그럴듯하기도 했고, 뭔가 눈에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받고 싶어 하였다.

– 그러나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의 속임수에 불과하였다.

4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자. 이 둘이 서로 대적이 된다.

– 율법은 지킴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노력은 결국 완전함에는 이르지 못함으로 끝나게 된다.

–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만큼, 완전하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값없이 얻었으니,  
은혜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을 지키니 완전하게 된다.

(율법은 문자요 해석과 정신과 행위는 사람이 성령과 더불어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법이다. 성령이 없는 율법은 문자요,  
감옥이요, 정죄요, 거치는 것이 된다.)

– 이는 율법정신을 통해서 이해하면 쉽다. 율법은 3가지, 가장 중요한  
지켜야 할 율법은 십계명,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짐. 두부  
분은 각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 정신을 요약할 수 있음.

–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게 됨. 성령으로  
만 완전하게 됨. 사랑은 가시적이며 순전함. 즉, 마귀는 결코 흉내  
내지 못하는 순전한 성령의 것.

– 결국 성령께 집중하게 되면, 세시 풍속에 휘둘리지 않게 됨.

6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  
사하는 믿음뿐이니라

–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율법만으로는 무익하다.

–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 성령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

–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니 사랑이 그 증거가 된다.

–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에게는 믿음이 가장 중  
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만약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행하려고 하면 사랑이 아닌, 정죄로 나타난다.)

## <찬양예배>

주제: 성령 제목: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 갈라디아서 5장7-15절

7 너희가 달음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니

8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9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10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11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12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13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14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으니

15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자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5:7-15)